마지막 때의 징조: 마귀들의 교리

성경말씀: 딤전4:1-2

천사 이야기, UFO 이야기, 유튜브, 악한 일들이 닥친다.

성경의 구조: 사람의 타락, 죄, 구원 등과 관련한 말씀도 있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도 있으며 크리스천 교회가 지켜야 할 교리의 말씀도 있다.

1. 구약성경의 구조

모세오경: 창조, 죄, 대홍수, 민족들, 이스라엘

여호수아…에스더: 이스라엘 이야기, 메시아 계보

시편…전도서: 시가 문학

이사야-말라기: 대언서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의 배도와 그것으로 인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있고 동시에 거의 모든 대언서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 회복이 나오는 대목을 보면 대개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임하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극심한 환난을 주시며 그 뒤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께서 핍박하는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으뜸가는 민족이 된다.

구약 성경의 총 주제는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자신의 왕국 혹은 왕권을 세우시는 것이다.

2. 신약성경의 구조

신약 성경을 살펴보아도 그 내용은 동일하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통해 여러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시 오리라."는 재림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의 교리에 관한 서신을 여럿 썼지만 특별히 재림에 관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도 베드로, 요한, 유다 등 대부분의 신약성경 기자들이 다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신약성경 안에서만 무려 삼백 번이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심판의 주님으로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신구약 성경의 클라이맥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기독교 역사 철학이요, 성경의 핵심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확신의 대상이다.

3. 우리의 삶의 자세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고 있는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세상 삶을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가 도를 닦아야 할까?

마음으로는 항상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바라며 살아야 한다.

골3:1-3

직업과 환경과 나이와 처지 등에 따라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 자기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한다.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 지금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기도회 모이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영혼 구령하는 것, 봉사하는 것, 아이들 바르게 키우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 있지만 오늘은 마귀들의 활동을 그 증거로 대려 한다.

목사의 임무: 먹이를 제대로 주는 것,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것

막6:7-13, 열두 제자 선정, 14-29 침례자 요한의 죽음

30-44,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 육의 양식을 주시기 전에 34절을 보면 영의 양식을 먼저 주신다.

행20:28-31

목사들이 바른 것을 외쳐야 성도들이 산다.

A.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긴다.
말씀의 변개와 부패,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그런 자들이 생겨났다(고후2:17).
하나님은 한 성경을 주셨는데 오늘날에는 성경이 수백 종류다. 다 같지 않다.
NIV, 리빙 바이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로마 카톨릭 뉴에이지 성경이다.
B.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오직 여기서만 마귀들이 언급되고 있다.
악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마귀에게서 에너지를 얻는다.
사탄 마귀에게는 자신의 일꾼들이 있다(고후11:13-15). 자신만의 교리들이 있다.
마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한다.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일을 하게 한다.
사탄은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일을 막으려 했다(마16:21-23).
아나니야와 삽비라(행5장)
성도들을 배도하게 만든다.
특징: 교회 안에서 이런 일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특정 인물이 영광을 받고 독재를 하는 체제, 목사의 역할(고후1:24)
은근히 "우리만 교회다"를 강조한다. 문제는 교회에서 순수한 의도들 가진 것으로 보이면서 그렇게 한다.
C. 위선을 행한다.
말과 행실이 다르다. 아합 왕 시대(대하18장), 미가야의 말
거짓 대언자들의 아첨 떠는 말
주님의 말씀: 누가 아합을 꾀어내어 라못 길르앗에서 죽게 할까?
21절: 한 영의 대답, 그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천주교회의 거짓말, 연옥, 마리아, 미사, 성사들
다 배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
D.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가죽에 인두를 대면 가죽이 그을리고 죽어서 딱딱해진다.
양심이 죽어서 작동하지 않는다.
베니 힌, 대형 교회 목사들(총회장, 노회장, 감독 등등)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마7:21-29).
E. 많은 말세의 징조들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가장 확실한 징조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것을 무시한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에스라 하우스'라고 노○○ (장로교) 목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질문과 답변
운영자인 노 목사는 장로교 계통에서 계시록 주석으로 잘 알려진 분이다.
칼빈주의 해석 체계이므로 환난 통과설을 주장한다.
계시록의 대가라는 사람이 현 시대를 보는 관점은 한심하다.

질문: 로마서 11장 25-27절에 대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답답하여 질문하게 되군요.
이스라엘이 대거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할 때 심판 날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설명을 로마서 11장 25-27절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 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심판 날은 못 찾겠고 구원 문제만 헷갈리게 됩니다. 심판 날과 상관이 있는지요…그리고 로마서 11장을 읽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주인공 같고 이방인은 말 그대로 이방인 취급 받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고 이스라엘을 질투하도록 하셨고 그 동안에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도 맞는지요. 하여튼 재림하고 로마서11장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 노 목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답변: 다른 번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문맥이나 문장이 어려울 때는 다른 번역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 새번역 혹은 개역 개정판을 참고하시고 그래도 어려우시면 영어 성경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틀림없이 구약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먼저 충분히 읽어서 원만한 이해가 있어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의 기사는 주님의 재림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영영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아직은 상당한 세월이 흘려야 하고 아직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쯤 되면 다시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배반하고 반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때가 올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그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이방인 세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도가 전혀 되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 과연 성도들을 세워 주는 것인가? 지금 질문을 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이 어렵기 때문인가? 더더욱 현대어 성경은 개역성경만도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 노 목사는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로마서 11장이 주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이것이 사실인가? 어떻게 성경을 읽기에 이스라엘의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답답한 심정으로 물었던 그분이 지적한 그대로이다.
즉 그 장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른 뒤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다루고 있다. 스가랴서 12-14장을 천천히 문맥을 따라 보기 바란다. 이스라엘의 극심한 환난 이후에 살아남은 온 민족이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노 목사는 또한 주님의 재림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 뒤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틀린 생각이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
이스라엘이 부활해서 나라를 되찾으면서 이제 우리는 말세 중의 말세를 맞은 것이다.
에스겔서 40-48장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기사가 나오며 37장부터는 천년왕국 전에 이스라엘이 부활하는 내용이 나온다.
“구약성경을 먼저 충분히 읽어서 원만한 이해가 있어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는 자기 스스로 구약 성경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분께서 재림하려면 멀었다는 주장을 편다.

천주교와 칼빈주의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마귀들의 교리
날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신학과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순진한 목사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체제의 덫에 걸려서).

믿는 자들이 재림의 교리를 잘못 가르치며 배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부활해서 언제라도 성전을 지으려 하고 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눈을 하늘로 향하고 부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에 애착을 두어야 한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된다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